

## 심리학사 및 이론체계 12주차

심리역동  
정신분석 전통  
2. 프로이트와 정신분석학



12-2-1

12-2장 file no.1

심리학사 및 이론체계 12주 2회 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이미 앞서 언급한대로 2회 차 강의는 무의식 개념의 발견의 역사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다. 이 강의의 내용은 프로이트의 이론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배경과 평가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이론은 성격심리학이나 이상심리학 등 다른 곳에서 이미 많이 얘기 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자료를 통해서 접할 수도 있다고 보고, 심리학 개론 책 등에서 제시되는 부분들의 일부는 생략하겠다.

### 12주-2회차 학습 목차

- 1. 프로이트 웹 자료
- 2.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의의
- 3. Freud의 학문적 배경
- 4. 무의식 개념의 발견
- 5. 프로이트 형성기
- 6. 프로이트 제1기: 정신분석학의 형성
- 7. 정신분석학의 고전적 시기
- 8. 정신분석학의 개정 및 확장
- 9. 프로이트 이후
- 10. 프로이트 종합 평가



12-2-2

12-2장 file no.2

12주 2회 차 학습목차를 보면, 첫째 프로이트의 웹 자료에 대한 자료들이 제시되어 있고,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의의, 프로이트의 학문적 배경, 무의식개념의 발견, 프로이트 형성기 초기, 그 다음에 정신분석학의 형성, 정신분석학의 고전적 시기, 정신분석학의 개정 및

확장, 프로이트의 이후, 프로이트의 종합평가 등으로 되어 있다.

## 12주-2회차 학습 목표



- 1. Sigmund Freud의 정신분석학에 영향을 준 사조들을 파악한다
- 2. 프로이트의 이론의 변화과정을 파악한다
- 3. 프로이트의 공헌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12-2-3

12-2장 file no.3

2회차 강의의 학습목표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영향을 준 사조들을 파악하고 프로이트의 이론의 변화과정을 파악하고 프로이트의 공헌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 1. 프로이트 웹자료



- [Freud](#)
- <http://psychclassics.yorku.ca/Freud/Dreams/dreamsref.htm>
- <http://psychclassics.yorku.ca/Freud/Dreams/dreams7a.htm>
- **The Interpretation of Dreams  
Sigmund Freud (1900)**



12-2장 file no.4

### [1. 프로이트 서론: 웹 자료]

다음에 프로이트에 관한 웹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이외에 이번 주 강의 글 중간 중간에 제시되는 웹 자료들도 살펴보기 바란다.

프로이트 : 위키백과 자료 (한글)

[http://ko.wikipedia.org/wiki/지그문트\\_프로이트](http://ko.wikipedia.org/wiki/지그문트_프로이트)

프로이트: 웬엔하위키와 미러 자료

<http://mirror.enha.kr/wiki/%EC%A7%80%EA%B7%B8%EB%AC%B8%ED%8A%B8%20%ED%94%84%EB%A1%9C%EC%9D%B4%ED%8A%B8>

세상을 바꾼 책 이야기(11)--<꿈의 해석> 지그문트 프로이트 ; 월간 동아 자료(한글)

<http://librekim.khan.kr/508>

정신분석학: 위키백과자료 (한글)

<http://ko.wikipedia.org/wiki/%EC%A0%95%EC%8B%A0%EB%B6%84%EC%84%9D%ED%95%99>

꿈의 해석 : 위키백과 자료 (한글)

[http://ko.wikipedia.org/wiki/%EA%BF%88%EC%9D%98\\_%ED%95%B4%EC%84%9D](http://ko.wikipedia.org/wiki/%EA%BF%88%EC%9D%98_%ED%95%B4%EC%84%9D)

Freud Museum (영문/ 사진 많음)

<http://www.freud.org.uk/visit/>

Sigmund Freud - Life and Work (영문)

<http://www.freudfile.org/>

프로이트의 저서와 연구서 (브리타니아 배과사전 자료; 한글로 전환해야 함)

[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24p0273b](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24p0273b)

프로이트 (브리타니아 클래식 자료)

<http://preview.britannica.co.kr/spotlights/classic/main.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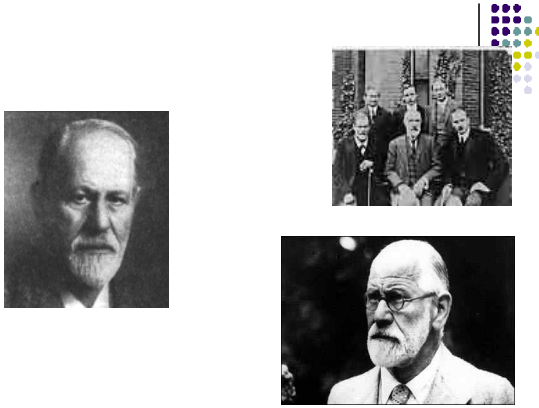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영문 자료 (PSYCHOANALYSIS by Sigmund Freud)

<http://preview.britannica.co.kr/spotlights/classic/main02.html>

프로이트의 생애와 정신 분석 요약 (한글)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astoryoung&logNo=50010684880>

12-2강 file no.8/ 12-2강 file no.9



12-2-8

그 다음에 프로이트 주요 사진들이 나와 있다.  
 프로이트의 초기에 삶과 내용의 자세한 설명은 위에 제시한 링크의 하나인 [Sigmund Freud - Life and Work (영문)]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http://www.freudfile.org/>).

## 2. 정신분석학의 의의?

- 프로이트는 전통에 저항하며 일종의 Austrian-Hungary 왕족, 지배자들에 대한 저항(유대인)으로 정신분석학 시작
- 프로이트의 말:
  - 정신분석학은 인간의 자존심에 대한 제 3의 타격 (혁명)
  - 코페르니쿠스가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 아님을 보임
  - 다윈이 인간이 동물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일부임을 보임
  - 프로이트가 인간의 자아(ego)가 자신의 주인이 아님을 보임

12-2-9

12-2강 file no.10

### [2. 정신분석학의 의의]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의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뒤에 종합할 때 다시 한 번 얘기 하겠지만, 프로이트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왕족 지배자들에 대한 일종의 저항으로 정신분석학을 시작했다. 프로이트의 말에 따르면, 정신분석학은 인간의 자존심에 대한 제3의 타격이라고 볼 수 있겠다. 코페르니쿠스가 인간이(지구가) 세상의 중심이 아닌 것을 보임으로써 제1타격을 주었고, 다윈이 인간이 동물과 마찬가지로 진화된 것을 보임으로써 제2타격을 주었다면 프로이트가 인간이 자신의 주인이 아니고 무의식적 충동에 의하여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의 자존심에 대한 충격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12-2강 file no.11

### 3. Freud의 학문적 배경



- 1. 생리학자 Bruecke 밑에서 생리학자로 신경계의 생태학 연구
- 1870: 오스트리아인 의사 Breuer와 함께
  - 21세의 여자 치료
    - 마비(9일부), 시각장애, 이상한 눈이 제멋대로 움직임, 유리잔으로 물마시기 싫어함
    - 증상이 심한 상태
    - **최면 하에 밝혀진 사실**
      - 어릴때에 가정부가 개에게 유리잔에서 물을 먹게 함
      - 감히 이야기 못했음

12-2-10

### [3. 프로이트의 학문적 배경]

프로이트의 학문적 배경을 보면 초기에는 오스트리아 생리학자 Ernst Brücke 밑에서 생리학자로 신경계의 생태학을 연구하였다. 프로이트의 삶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의 웹 자료를 참고하여서 볼 수 있다. 그의 삶의 주요 사항을 이야기하자면 다음과 같다.

#### 프로이트의 삶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 5. 6. ~ 1939. 9. 23.)는 1856년 5월 6일 (정확한 출생 일자에 대해 역사가들의 논란이 있다. 그가 출생한 도시의 기록에 의하면 3월 6일 생이다.), 체코의 Freiberg시(Moravia 지방)에서 유대인 부모 Jakob Freud과 Amalia Freud의 3남5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22세까지의 이름은 Sigismund Schlomo Freud였다. 아버지 사업의 실패로 네 살 때에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이주한 후에 거기서 김나지움을 다녔고 최우등으로 졸업한 후에 비엔나 대학 의대에 입학하여 1881년에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는 그전에 22세에 이름을 Sigmund로 바꾸었다. 졸업한지 4년 후부터 Salpetriere 병원에서 Charcot 교수와 히스테리아와 최면을 연구하였다. 이듬해에 의사 개업을 하였다. 1895년에 Breuer와 히스테리아에 관한 저술을 내고, 1896년에 (41세에) ‘정신분석’이라는 용어를 처음 썼다. 44세에 [꿈의 해석] 책을 내고, 57세에 [토템과 타부] 책을, 64세에 [쾌락원칙을 넘어서]를, 67세에 [이드와 에고]를 73세에 [문명과 그 불만]을 출간했고, 83세 9월 23일에 암으로 영국 런던에서 사망했다. 출판사 ‘열린책들’에서 1997년부터 출간된 한글판 [프로이트 전집]은 2014년 1월 현재 총 15권으로 되어 있다([http://books.google.co.kr/books/about/%ED%94%84%EB%A1%9C%EC%9D%B4%ED%8A%B8%EC%A0%84%EC%A7%91\\_%EC%A0%8415%EA%B6%8C.html?id=azQkKAAACAAJ&redir\\_esc=y](http://books.google.co.kr/books/about/%ED%94%84%EB%A1%9C%EC%9D%B4%ED%8A%B8%EC%A0%84%EC%A7%91_%EC%A0%8415%EA%B6%8C.html?id=azQkKAAACAAJ&redir_esc=y)).

#### 프로이트의 학문

1870년에 오스트리아 의사 Josef Breuer와 함께 21세의 여자를 치료하였다. 이 환자는 신체가 일부 마비되었고, 시각장애이고 눈이 제멋대로 움직이어서 유리잔으로 물을 마시기

를 싫어했다. 증상이 심한 상태였는데 최면을 시켜서 밝혀진 사실은 어릴 때 가정부가 유리잔으로 물을 먹게 했기 때문에 감히 말을 못했지만 유리잔으로 물을 먹기 싫다는 무의식이 있었던 것이었다. 치료에서 그런 과거의 무의식에 잠겨있었던 내용을 밝혀주어서, 가정부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난 이후에는 그 증상들이 사라졌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런 예를 통해서 는 어릴 때 공황적 경험에 대한 기억이 그것이 상징으로 무의식적으로 남아있어서 여러 가지 심리적 이상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았고, 치료는 말(행동)로 어릴 시절 경험을 표현하게 하는 카타르시스 방법을 사용하면 좋겠다고 프로이트는 생각했다. 이러한 사건에서부터 심리역동 치료에 대한 프로이트의 이론화가 제기가 되었다.



- 밝혀준 후에 분노를 표출
- 후에는 증상이 아주 사라짐
- 결론: 공황적 경험에 대한 기억 상징이 남아 있음에서
- 치료: 카타르시스
- 이러한 사건에서 심리역동 치료 이론화가 시작됨

12-2-11

## 12-2장 file no.12



### Freud의 중심 개념

- 1. 성격의 진화론 입장
  - 성격의 근거: 동물적, 생존수단
- 2. Bentham의 쾌락주의
- 3. 심리적 성장을 에너지 형태로 표현
  - 물리적 세계의 법칙과 동일하게
  - 물리적 세계와 마찬가지로 심리적 에너지가 보존, 저축, 방 향지워지고, 분할되나 결코 파괴안됨
- 4. Fichte, Schelling과 같이 세계 및 인간 내부를 양 극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봄
  - Id-superego: eros-thanatos, pleasure원리 -reality원리

12-2-12

## 12-2장 file no.13

프로이트 이론의 중심 개념과 그 발전 역사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성격의 진화론 입장이 있다. 성격은 진화적으로 동물적인 생존수단으로 진화되었다. 그에 기초를 두고 동물적인 성 충동에 대한 이론을 제시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영국 사회과학자 J. Bentham의 쾌락주의("greatest happiness principle"; 고통보다는 쾌락("pleasure" over "pain"을 강조 함))가 연결이 되고, 세 번째로 심리적 성장을 에너지 형태로 표현하려는, 그러니까 물리적 세계의 법칙과 동일하게 심리적 에너지가 있고 보존되고, 저축되고, 분할되지만 결코 파괴 되지 않고 보존된다는 물리학의 에너지 보존의 역동 개념을 프로이트는 심리학에 연결하여

적용하려고 했다.

넷째로는 독일의 철학자들 Fichte, Schelling과 같이 세계 및 인간 내부를 양극적으로 대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그의 이론적 개념인 ‘id’, ‘super ego, eros, thanatos’, ‘쾌락원리’ 대 ‘현실원리’ 등을 대립적으로 설정하여 그의 주요 이론을 세웠다.



- 5. Hegel을 따라서 심리학의 근본적 주제는 의식(무의식)이어야 한다
- 6. 이성과 감성이 최종의 평화와 하모니를 추구하며 끊임없이 움직여 나가는 것
- 7. 자아 개념의 혁명

12-2-13

12-2강 file no.14

다섯 번째로, 독일 철학자 헤겔을 따라서, 심리학의 근본 주제는 의식과 무의식이어야 한다고 프로이트는 생각했다. 독일 철학의 핵심주제는 의식이었다. 이것이 독일의 철학의 전통이었고, W. Wundt에게도 이어졌는데 프로이트는 그 주제를 이어 받아서, 의식이 심리학의 기본주체인데, 의식은 무의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의식이 심리학의 기본주체이라고 생각했다.

여섯 번째로 그는 정서와 사고 또는 이성이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조화를 이뤄나간다는 그런 개념을 제시했다. 일곱 번째로 프로이트에 의해서 ego, superego, id 등의 개념이 심리학에 부각되면서 자아 개념이 변혁되도록 하는 혁명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프로이트 이론체계의 출현이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 4. 무의식 개념의 발전: (17세기 이후)



- Leibnitz:
  - monad- 공간적 연장이 없는 심리적 실체, 본질적으로 심리적이거나 물리적 특질
  - 집적되면 물리적 특질 획득- 활동과 에너지의 중심
  - 심적 사건은 명료성에서 차이 있음 : 여러 수준: 무의식, 의식
  - 무의식적 아이디어 = petite perception
- Herbart:
  - 의식의 식역 개념, 식역 이하는 의식 안됨, 부적절, 무관한 생각들은 무의식으로
  - petite perception = inhibited ideas
  - 의식이하의 아이디어들의 의식 수준으로 떠오르려는 능동적인 struggle
- Schopenhauer:
  - - 비합리적 힘 - 무의식

12-2-14

12-2강 file no.15

#### [4. 무의식 개념의 발전]

프로이트 이론체계에서 무의식에 있는 성충동 등의 개념이 중요하다. 무의식 개념이 프로이트 자신의 아이디어나 하면, 그렇지 않고 이미 희랍시대에 [무의식]이 인간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그런 개념이 나왔었고, 17세기 이전의 유럽 사상가들에서만 본다고 해도 프로이트 이전에 다른 학자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라이프니츠(Gottfried Wilhelm von Leibniz; 1646-1716; [http://en.wikipedia.org/wiki/Gottfried\\_Wilhelm\\_Leibniz](http://en.wikipedia.org/wiki/Gottfried_Wilhelm_Leibniz))는 단원('monad')이란 개념을 제시했는데, 단원('모나드')는 공간적 연장이 없는 심리적 실체, 그러니까 물질과는 다르지만 심리적인 요소라고 그는 보았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것이 물질적인 특질도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모나드'라는 심리적 요소, 단위가 물리적 특질을 획득해서 활동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명료하고 명료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러한 모나드에 의해서, 모나드의 수준에 따라서 대상이나 사건은 의식되거나 의식되지 않는다고 Leibnitz는 주장했다.

그 다음에 독일 철학자요 교육학자이었던 Herbart(Johann Friedrich Herbart, 1776-1841; [http://en.wikipedia.org/wiki/Johann\\_Friedrich\\_Herbart](http://en.wikipedia.org/wiki/Johann_Friedrich_Herbart))는 의식의 '식역'(threshold; 독어로는 'Limen') 개념을 제시해서, 식역 이하는 의식이 안 되고, 식역 이상은 의식되며, 식역 이하는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에는 Leibnitz나 Herbart의 생각이 상당히 이미 들어 있다. 그들에 의하면 무의식의 내용은 다른 생각들에 의해서 억압된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의식이하의 무의식에 있는 생각들은 식역 수준 이상으로 수면위로 떠오르려고 하는 능동적인 추동이 있다.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 1788-1860)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프로이트는 쇼펜하우어의 생각의 영향도 받았다.





- **Fechner:**
  - 식역, ; 마음은 빙산과 같은; 수면하의 내용은 보이지 않는 힘의 영향을 받음
  - Freud가 Fechner의 정신물리학 책에서 여러 번 인용하여 기술함
  - Freud의 쾌락원리, 심적 에너지, 마음의 공간적 개념, 파과적 본능에 영향줌
- **Hartman**
  - 무의식의 철학; 1868, 당시 독일에는 무의식 개념이 유행 사조
  - 그러나 Freud 이전에는 무의식과 동기화를 체계적으로 연결한 사람 없음, 특히 정신병에

12-2-15

## 12-2장 file no.16

그 다음으로 정신물리학(심리물리학)의 틀을 제시해서 분트의 실험심리학을 발달하게 한 Fechner는(이전에 설명했다.) 식역(threshold) 개념을 얘기했는데, 마음은 빙산과 같고 수면 아래 내용은 보이지 않는 힘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프로이트는 Fechner의 개념들을 인용해서 자신의 이론에 사용했다. 심적원리에 대한 개념들이 Fechner에서 프로이트에게로 전수되어 왔다.

다음에 직접적으로 프로이트한테 영향을 준 사람은 Hartman(Eduard von Hartmann, 1842-1906; <http://global.britannica.com/EBchecked/topic/256189/Eduard-von-Hartmann>)이라고 하는 당시의 독일 철학자였는데 그는 무의식을 강조하여 이론을 전개하였다. 무의식 개념이 프로이트 전에도 학자들에 의해서 제시되었지만, 프로이트 이전에는 무의식과 동기화를 체계적으로 연결한 사람은 없고 특히 정신병과 연결시켜서 무의식을 얘기한 사람은 없었다. 무의식에 관한 어떤 책들을 보면 프로이트가 그 당대에 갑자기 무의식개념을 발견해낸 것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데, 프로이트 이전에도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무의식 개념이 발굴되고 가다듬어져 왔으며, 단지 프로이트는 그 개념을 정신병에 특별히 연결시킨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 S. Freud



12-2-16

12-2강 file no.17

## 5. 프로이트의 형성기

- Charcot와 프로이트
- 별첨 한글 파일 참고



12-2-17

12-2강 file no.18

## [5. 프로이트 이론 체계의 형성기]

프로이트의 이론 형성기를 살펴보면 먼저 Charcot와 프로이트의 연결을 얘기할 수 있다.



### Nancy-Salpe'tri're 논쟁

- <Nancy학파>
- Auguste A. Lie'beault(1823-1904):
  - 최면치료법 효과를 믿고 무료 최면 치료:-널리 알려짐
- Hippolyte Bernheim(1840-1919): 최면 암시성의 개인차 발견:
  - -'생각을 행위로 전환하는 적성' 인 suggestibility 개념 발전시킴
  - - 최면뿐만 아니라 환자가 원하기만 한다면 '실득'만으로도 치료 가능함 보임
    - (현대적 대화에 의한 심리치료 개념 선구)
  - - 모든 사람이 최면에 걸릴 수 있음:
    - 최면의 피암시성은 가변성이 있지만 히스테리아가 아닌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정상적 현상

12-2-18

### 12-2장 file no.19

이 당시에 프랑스에서는 낸시(Nancy)학파와 Salpe'tri're학파의 논쟁이 있었는데 낸시학파는 최면 위주로 정신병을 치료하려고 했다. 또 H. Bernheim같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최면에 걸릴 수 있으며, 최면이 심리적으로 중요하고 최면이 개인의 피암시성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 Charcot (1825-1893):

- <Salpe'tri're학파>: Charcot 학파
  - Jean-Martin Charcot (1825-1893):
    - - Napoleon of Neuroses
- Salpe'tri're 병원에서 근무: 40여개의 병동에 수천 명의 환자 수용
  - - 많은 신경학적 연구, 발견, 이론보다 관찰 강조; 강연 -> 모든 인물, 문화적 사건
- - 병원에 '신경병학' 교수직을 창설
- - hysteria 증상과 최면과의 유사성 발견:
  - 동일 원인임
- : hypnosis: = as aspect of hysteria

12-2-19

### 12-2장 file no.20

Charcot는 낸시학파에 반대하는 살바트레 학파의 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Napoleon of Neuroses'라고도 불리어졌었다. 신경증에 대한 신경증학에 대한 나폴레옹 같은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다. 그는 파리 살바트레 병원에 근무하면서 40여개의 병동에 수천 명의 환자를 수용하여 정신병자를 치료했다. 이론보다는 관찰을 강요하면서 병원의 신경병학 교수직을 창설하고, 히스테리아 증상과 최면과의 유사성을 발견하고, 최면과 히스테리아의 연결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는 최면암시성이 정상인의 특성이라는 낸시학파의 입장에 반대해서 신경계가 유전적으로 퇴화된 사람만이 최면에 걸린다고 보았다.

(다음 그림에 Charcot의 초상화가 제시되어 있다.)



Aux côtés de Charcot, Freud observe les manifestations de l'hystérie.

1-2-20

12-2장 file no.21



- - 고로, 최면암시성이 정상인 특성이라는 낸시학파 입장에 반대
  - => 논쟁 => 최면 부각됨
- - 신경계가 유전적으로 퇴화된 사람만 최면 걸림
- - Freud가 1885-1886에 이곳에서 배움
- - Hysteria :
  - 특정 증상마다 특정 type 이 있음 주장
  - 심한 발작증/ 경미한 증상

12-2-21

12-2장 file no.22

그는 특별한 경우에만 최면에 걸린다고 주장했다. 이를 프로이트가 Charcot한테 배우면서 Charcot의 입장을 발전시키지만 그와는 다르게 이론을 발전시켰다.



- - 이전부터 갖고 있던 hysteria 에 대한 통념 공격
- - 이전통념:
  - 1. 거짓 증상, 피병 2. 여성에게만
- -> 꾸민 행동이 아닌 참 증상;
- -> 남자도 증상
- - 4단계를 거쳐 증상이 나타남
- - 이후 3단계설: 이완 -> 무력 -> 잠
- : grand hypnotism 상태
- -병의 원인은 유전적, 점진적 신경계의 퇴행
- - 최면을 의학계의 공식적인 연구주제로 만들음
- ==> 두 학파간의 논쟁 계속됨

12-2-22

### 12-2강 file no.23

하여간에 Charcot는 학계나 사회 일반이 이전부터 갖고 있던 히스테리아의 통념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이전에 일반인들이 갖고 있던 통념은 ‘히스테리아는 거짓 피병이며 거짓증상이며 여성에게만 나타난다’고 봤는데, Charcot는 히스테리아는 꾸민 행동이 아니고, 참 증상이며, 남자에게도 증상이 나타나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나타나고, 병의 원인은 유전적, 점진적 신경계의 퇴행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최면을 정신병과 연결해서 의학계의 공식적인 연구주제로 만들었다.



- Joseph Delboeuf
  - -> 자기력 때문도 아니고,
  - Charcot의 최면유형도 인위적 산물; 환자의 역할
- <Charcot의 역할>;
  - - 정서와 신체적 요인의 상호작용 탐색
  - -최면과 히스테리아의 중요성을 과학적 중요성으로 살림
  - - 문제 발견자의 역할;
    - 문제 해결자는 -> 프로이트
  - -그에 의하여, 히스테리아, 최면, 암시성, 정신병학이 널리 관심 갖는 의학/과학의 주제가 됨

12-2-23

### 12-2강 file no.24

Charcot의 학문적 역할을 보면 정서와 신체적 요인의 상호작용을 탐색하고 최면과 히스테리아의 과학적 중요성을 살리고 또 최면과 히스테리아의 연결성을 문제를 발견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문제를 중심주제로 삼고 이론 틀을 세우는 것은 프로이트에 의해서 가능해진 것이다. 그렇긴 하지만 Charcot는 정신병학, 정신의학이 설 수 있게 하고, 히스테리아, 암시성 최면 이런 것이 정신의학의 주제가 되게 해서 프로이트한테 넘겨주었던 것이다.

## Charcot & Freud



- 별도 hwp 파일 내용 참고
- 이전의 생각: 히스테리는 다양한 원인
  - 속임수 등
- Charcot: 히스테리는 단일 원인에서 비롯됨
  - 신경계의 유전적 결함
- Freud: 히스테리는 단일 원인에서 비롯함
  - 심리적 원인, 아동기 시의 성적 trauma 원인

12-2-24

### 12-2강 file no.25

그 다음에 Charcot와 프로이트의 연결과 차이를 보면 Charcot는 히스테리는 단일 원인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서 신경계의 유전적 결함 원인에서 비롯한다고 봤는데, 프로이트는 히스테리는 단일원인에서 비롯하긴 하지만 그것이 신경계의 유전적 결함이라기보다는 심리적 원인, 즉 아동기의 성적 공황(트라우마)에 의해서 비롯된다고 해서, 무의식과 히스테리아, 어릴 때 경험 이 셋을 연결한 것이다.



- Freud
  - 최면을 이따금 사용
  - 모든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님 발견
  - 연상법을 추가
  - 환자가 자유 연상한 것에 대하여 의사가 해석

12-2-25

### 12-2강 file no.26

프로이트가 실제로 환자를 치료할 때 최면을 항상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따금 사용하였고, 최면이 모든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님을 발견하고, 그에 첨가하여 연상법을 재정리하여 환자가 자유연상한 것에 대해서 프로이트이론 관점에서 해석하는 그런 절차를 도입하였다.

## Hysteria 연구: Freud & Breuer



- Anna O:
  - Breuer 환자
  - 히스테리 증상; 컵, 최면 효과
  - 프로이트가 치료한 것은 아니고 Breuer에게 이야기 하여 그 사례를 자기 이론의 핵심 증거로 사용. 공동 논문
  - 정서적 공황 -> 억압 -> 최면 재생
  - 최면변이 아닌 이야기 법 처음 사용
  - 이 기법 언급하기 위하여 1896에 정신분석이라라는 말을 사용
  - 신경증의 생리적 관점에서부터 심리적 관점에서의 이전 시점

12-2-26

12-2장 file no.27

프로이트는 Charcot에게서 받은 영향 이외에, 오스트리아 의사 Josef Breuer의 영향을 받았다. Breuer와 함께 정신병 여환자 안나 오(Bertha Pappenheim이라는 여자의 가명)라는 환자가 정서적 공황(트라우마)가 억압되어 마비가 있었는데, 그 환자가 무의식에 억압된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한 후에 그녀의 증상들이 경감되거나 사라졌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치료에 최면법만이 아닌 이야기법을 사용했고 정신분석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정신질환에 대한 설명을 생리학적 관점에서부터 심리학적 관점으로 옮겨 가도록 하게 한 것이다.

## 6. Freud 제 1기: 1884-1899 정신분석학의 형성



- <프로이트와 생물학>
- 다른 심리학의 창시자들처럼 심리학을 생물학, 생리학에서 접근하려 함
- 유명한 생리학자 Ernst Bruecke에게서 공부
- 처음에는 심리학을 생리학에 기초한 과학으로 만들려 하였으나
- 실제 치료를 하면서 정신분석학을 과학/ 치료로서 시작함
- 당시는 신경증을 주로 신경계의 장애로 간주함

12-2-27

12-2장 file no.28

### [6. Freud 제 1 기: 1884-1899]

프로이트의 제1기 정신분석학의 형성을 보면 생리학자 Bruecke에게서 공부하고 심리학을 생리학에 기초한 과학적 치료로서 하려고 했다.



- 38세에(1894-1895), '과학적심리학 프로젝트' 기획함
  - a man like me cannot live without a hobbyhorse, without a consuming passion, without – in Schiller's words – a tyrant. I have found one. In its service I know no limits. It is Psychology
- 뉴턴적인 시도: 심리학을 양적인 자연과학으로 만들겠다. 마음과 행동을 순전히 생리적, 수량적 용어로 기술하겠다.
- 그러나 이후 자기 분석을 통하여 행동과 심리적 사건이 심적 무의식에서 비롯됨을 발견함
  - →프로젝트 포기: 심리신경증은 심적 원인, 무의식적 복합에서 비롯됨

12-2-28

### 12-2강 file no.29

38세에 그는 정말 '심리학을 양적인 과학으로 만들겠다.', '뉴턴처럼 그렇게 해서 마음과 행동을 순수히 생리적, 수량적 용어로 기술하겠다.'는 꿈을 세웠었는데, 그 이후에 심리적 사건이 무의식에 ○척하여 쪽에서 전개되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의 이론 틀을 바꿨다.



- 심적 이상의 원인을 신경계 메커니즘에서 찾는 것을 포기하였으나
- 생물학적 접근을 포기하지는 않음
  - 라마르크식 진화생물학에 의존
  - 개체발생의 전개는 계통발생의 전개를 반복
  - Heckel의 법칙
  - 심리-성적 발달은 인류의 진화 단계를 반복
  - 어릴 때의 성적 trauma는 발달단계가 미진한 어릴 때에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후에 나타남
  - → 히스테리아

12-2-29

### 12-2강 file no.30

그는 심적 이상의 원인을 신경계 메커니즘에서 찾는 것을 포기했지만, 생물학적 접근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았다, 그는 발달, 진화, 어릴 때 경험, 등 이런 생물학적 원인들과 신경증을 연결해서 그러한 원인들의 영향이 히스테리아로 나타난다는 이론을 제시 했다.





- 인간의 동기 유형은 몇 개 안됨
  - 기, 갈, 자아보존, 성
  - 이러한 동기들은 직접 충족되지 못하고
  - 다른 통로로 방출됨
- 
- 1905: 꿈의 해석 ; 성의 이론에 대한 세 논의

12-2-30

### 12-2장 file no.31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바탕에서 생물적이고 동물적인 성충동 동기를 강조를 하면서, 이런 성충동이나 굶주림이나 목마름이나 그런 충동들이 충족되지 못하면, 그런 것이 다른 통로로 방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고, 또한 꿈의 해석 입장과 성 이론을 제시했다. 무의식적 성충동이 프로이트 이론에서 가장 큰 개념이었다.



### 성 개혁자로서의 프로이트

- 성은 신경증의 유기적 원인
- 성은 그의 이론적 심리학의 보편적 생물적 기초
- 아동기의 성적 문제는 신경증의 원인
- 사회적으로 성의 문제를 개인이 극복하기 곤란
- 빅토리아 시기 유럽의 중산층의 생각
  - 하류층의 자유분방 부러워하면서도 자신들은 충동 억압
- 1905: 결혼 외 성을 합법화 지지
  - 불륜은 결혼으로 인한 신경증의 치료법일수도
  - 그렇지 않으면 신경증 계속

12-2-31

### 12-2장 file no.32

프로이트는 성은 ‘신경증의 유기체적 변인이다.’ 라고 생각했고, 성이 그의 이론적 심리학의 보편적 기초이었다. 그러면 정신병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그는 아동기에 성적문제가 생기면 신경증에 원인이 생기고, 성의 문제를 개인이 극복하기 곤란하거나 하면 억압이 생기고 이것이 정신병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이 프로이트 관점을 충분히 이해하려면 이 당시 빅토리아 시대에 일반인들이 성에 대해서 억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의사로서의 프로이트: 히스테리아



- 이전의 생각
  - 히스테리는 도덕적, 의지의 결함, 악령, 또는 신체적 원인
  - 1896 프로이트가 히스테리의 원인은 심리적 (성적)일 수 있다는 것을 발표하자 당시의 권위있는 학자는 ‘동화’라고 비판
  - 당시의 의학계의 신경증의 물리적 치료는
    - 전기적 치료: 20분간 물속의 환자를 전기쇼크 치료 + 질식 시키기, 수건으로 때리기, 조롱, 알음샤워, 황문에 튜브 넣기, 척추에 뜨거운 쇠판대기; 치료불가 경우 성기제거
  - ← 현대의 양 치료법 비교 고려

12-2-32

12-2강 file no.33

1896년 프로이트가 히스테리아의 원인은 심리적인 성적일 수 있다는 것을 발표하자, 당시 권위 있는 학자들은 프로이트의 얘기가 일종의 동화라며 비판을 했다.

## 유혹 이론의 앞치락 뒷치락



- 프로이트의 이론: 신경증의 원인
  - 첫이론: 성적 유혹 by 부모
  - 나중이론: 성적 충동의 억압
    - Oedipus Complex ; 무의식적 환상
  - 신경증의 원인은 단 하나
  - 신경증의 원인은 환경과 무관한 아동기의 경험; 성적 경험;
    - Trauma체험 이론 -> 충동억압 -상상 이론

W

12-2-33

12-2강 file no.34

성충동에 의해 억압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프로이트는 처음에는 성충동의 억압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최초의 이론에서는 성적 유혹이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것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후의 그의 이론에서는 부모의 유혹이론은 버리고 성적충동의 억압이 무의식에 남아있어서 신경증을 일으키게 된다고 얘기했다. 신경증의 원인은 아동기에 공황적(트라우마적) 체험이 억압되어서 그것이 신경증을 일으킨다고 그는 주장했다.



- 1896: 유혹이론
- 1897: 이에 대한 회의감 표현 , 아동기 무의식적 성적 충동의 기억, 억압이 신경증의 원인임을 주장함
- 정신분석학에서는 프로이트가 이를 발견하고 이론을 세웠다고 찬양하고 받드는데

12-2-34

12-2강 file no.35

그의 이론은 계속 변화하였다; 1898년에 유혹이론, 1897년에 아동기 무의식적 성충동 이론 등으로.

## 7. 정신분석학의 고전적 시기 1900-1919



- 기초 놓기: 꿈의 해석 1900
  - 당시의 분트 등의 학자와는 다른 의견
  - 평판이 나쁜 철학자나 옛 종교를 따라 꿈의 상징성, 무의식 반영 주장
  - 의식으로 수용할 수 없는 욕망
    - -> 억압 -> 무의식적 욕망, 충동-> 출현 에너지
  - 통제 위한 자아구조 : 3층
  - 꿈은 이 욕구, 충동의 안전 배출로, 욕구충족
  - 꿈을 해석하면 이 욕구를 알 수 있음

12-2-35

12-2강 file no.36

### [7. 정신분석학의 고전적 시기]

정신분석학의 고전적 시기를 보면 프로이트는 꿈을 해석하면서 이론을 계속 가다듬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는 억압, 무의식적 욕망, 충동, 에너지 그 다음에 id, ego, super ego의 3층 구조, 꿈의 해석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기본적으로 어릴 때 성 충동이 억압되고 이것이 발현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신경증이, 정신병이 생기는데 이것을 최면을 걸거나 꿈의 해석을 통해서 그 원인을 밝혀내서 그것을 드러내주면 치료가 된다는 입장의 그의 이론을 세웠다.



- 꿈과 히스테리는 원인이 같음
- 현실로 방출 억제 = 방어기제
- 방어기제가 와해되어 방출되면 신경증
- 꿈과 히스테리의 규명 방법: 자유연상법
  - -> 비합리적 무의식에 대한 합리적, 이성적 이해 도출 목적 -> 정신 건강
- 후에 연상법에 :
  - 특정 상징이 특정 충동을 지칭한다는 해석법 도입
- -> 신화, 전설, 예술의 해석에 쉽게 적용
- Oedipus Complex ← Hamlet

12-2-36

### 12-2장 file no.37

그러면서 현실로 방출하는 기제를 억제하는 것을 방어기제라고 하였는데, 방어기제는 심리학개론, 심리학입문 책에도 나오는 것이니까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한다 (관심이 있는 사람은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ko.wikipedia.org/wiki/방어기제>; [http://en.wikipedia.org/wiki/Defence\\_mechanisms](http://en.wikipedia.org/wiki/Defence_mechanisms))

프로이트의 입장은 간단히 이야기해서, ‘방어기제 때문에 억압된 성충동 생각(비합리적 무의식)이 있는데, 그것을 자유연상법을 통해서 표출시켜서, 환자 스스로 그것에 대해 합리적,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게끔 하면 정신건강이 찾아지고 치료가 된다’ 라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프로이트가 주로 사용한 자유연상법에는 여러 가지 다른 사조나 영향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꿈의 해석 : 의의

- 인간의 마음은 다층 구조
- 무의식이 사고와 행동을 조성
  - 일정한 규칙
- 적용: 예술: 제작자의 숨겨진 동기
- 적용: 사회: 법, 제도: 지배층 숨겨진 동기

12-2-37

12-2강 file no.38

그의 꿈의 해석 이론에서, 프로이트는 인간의 마음을 다층구조로 보고, 무의식이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한다는 전제 위에서 이론을 전개하였다.

### 성 이론의 3 에세이 (1905)



- 이전의 학자들과는 달리 아주 단순화된 동기 이론
  - 동물과 다른 동기 없음
  - 처음에는 성 충동만 강조
  - 1차 대전 후에 죽음 동기 추가
- 성 이론에 대한 지지자들도 있었음
- 파급효과 : 인류의 성에 대한 생각의 전환
  - 그의 이론: 시대착오적, 문화의존적
  - 그러나 솔직함
  - 문화적 변화 유발시킴

12-2-38

12-2강 file no.39

그는 1905년에 성 이론을 제시했는데, 처음에는 성충동만 강조하다가 1차 세계대전 후에는 죽음 충동, 죽음동기(타나토스)까지 이야기했다. 하여간 성충동, 죽음 충동 등이 인간행동을 결정한다는 그의 입장은 당시에 상당히 많은 파급효과를 일으켜서 문학 등에 많은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



- 첫 에세이:
  - 이상행동 뒤에 숨겨진 것 있다.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
  - 모든 신경증은 성적인 근거에서 오며, 자신의 성의 어떤 측면을 다루지 못함에서 발생
- 둘째 에세이
  - 유아의 성; 외디푸스 콤플렉스
- 셋째 에세이
  - 성인의 성: 사춘기-> 발현
  - 적절히 다루지 못하면 신경증
- 결론: 정신건강은 이러한 무의식적 충동, 어릴적 성 충동의 적절한 해결에 있음. 승화, 대치 등

12-2-39

12-2강 file no.40

그의 이론의 첫째 강조점은 신경증(이상행동)에 숨겨진 면이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것이 있고, 신경증은 성적인 근거에서 오며 자신의 성에 어떤 측면을 다루지 못하면서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유아의 성충동은 외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로 억압되어 있는 성충동으로 있고, 성인에 가서 그것을 적절히 다루지 못하면 신경증이 나오는데, 이것을 연상법(언어적 행동) 등의 방법을 통해 발현시켜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 정신분석학 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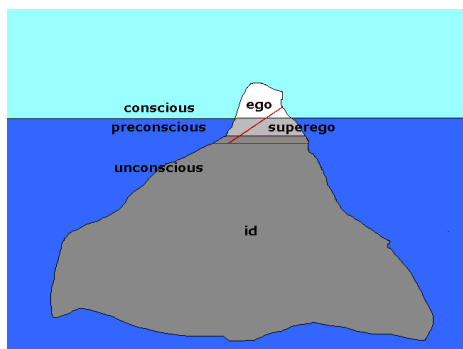
- **교재 참고**

12-2-40

12-2장 file no.41

정신분석학 이론의 세부에 관한 설명은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다. 관심있는 사람들은 다음 링크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거나 [임상심리학] 서적을 참고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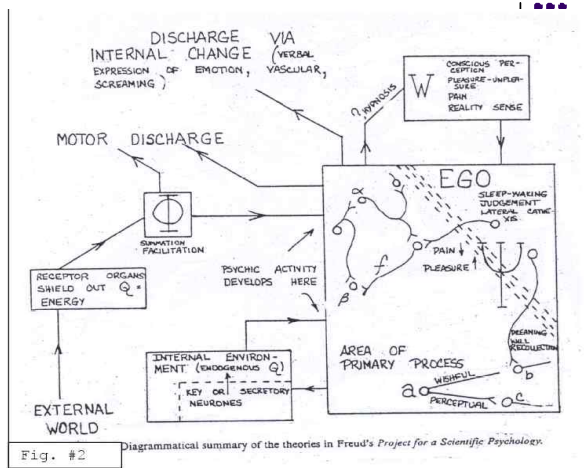
<http://ko.wikipedia.org/wiki/정신분석학> ; [http://ko.wikipedia.org/wiki/지그문트\\_프로이트](http://ko.wikipedia.org/wiki/지그문트_프로이트)  
;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24p0273b002>  
<http://www.psychanalysis.co.kr/psy/psy.php>; <http://www.toddlerstime.com/mh/drs/freud.htm>



12-2-41

12-2장 file no.42

위에 프로이트의 자아구조, 의식, 무의식 구조 그림이 제시되어 있다. 이 그림은 id, superego, ego의 다층관계를 간단히 보여준다.



12-2강 file no.43

그 다음 그림은 프로이트가 처음에 과학적 심리학을 만들려고 했던 노트 그림이다. 위의 개념들이 나오기까지 프로이트가 이론적으로 여러 요인들을 생각하며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 8. 정신분석학의 개정 및 확장 1920-1939



- 1920: 쾌락원리를 넘어서
  - 죽음 본능 추가됨
  - 삶은 drive 추동 감소의 반복 사이클
  - 이 사이클은 죽음으로 깨짐
  - 삶의 충동: Eros
    - Ego, Superego가 성적 충동을 억압
    - Eros가 죽음본능을 억압
  - 죽음의 충동: Thanatos
    - 성적 충동, 죽음 본능이 충족되지 못하면 공격성

12-2-43

12-2강 file no.44

### [8. 정신분석학의 개정 및 확산]

그 다음에 정신분석학 이론의 수정 및 확장에 대하여 이야기하자면, 1920년대에 프로이트는 [쾌락원리]를 넘어서서 죽음본능을 추구하고 삶의 충동, 에로스를 얘기하고, 타나토스를 얘기하고, 성적 충동, 삶의 충동, 죽음의 충동 들에 대한 이론을 전개했다.

## 1923; Ego & Id



무의식은 억압된 사고(역동적 무의식), 가용한 사고(전의식)를  
 지니고 있는 공간의 한 위치가 아니라  
 나름대로의 구조와 원리를 지닌 별도의 체계  
 -의식/ 무의식 2중 체계에서 구조체계로  
 <Mind>  
 Topographical model -> structural model  
 3층체계  
 -생득적, 비이성적, 만족지향적 id (무의식 체계)  
 -학습된, 이성적, 현실지향적 ego(의식 + 전의식)  
 -도적적 비이성적 superego (the sensor)  
 Id-ego 사이의 갈등 -> 문화에 갈등 초래

12-2-44

### 12-2강 file no.45

1923년에 그는 'ego'와 'id'를 대립시켜서 이론을 전개하고,



- 1927: Future of Illusion
  - 과학, 종교, 사회에 대한 비판
- 1930: Civilization and Discontents
  - 문화의 역할1: id, ego 충족과 갈등
  - 문화의 역할2: 안전성 보장, 인간성 보존
  - → 갈등

12-2-45

### 12-2강 file no.46

1927년에는 과학, 종교, 사회에 대한 비판을 제시하고, 1930년에 문화와 불만에 대한 글로 문화 전반에 대한 정신분석학적인 비판을 제시했다.



## 정신분석학의 운명



- 프로이트는 그의 멘토와 친구를 소원시킴
- 프로이트는 그의 추종자를 소원시킴
  - Jung, Adler, Rank
  - Freud 이후 분파간 갈등
  - 학계에서는 거의 영향력 없음
  - Tyrannosaurus?

12-2-46

12-2장 file no.47

프로이트가 정신분석을 계속 전개하면서 G. Jung, A. Adler, O. Rank같은 추종자들이 생겨났지만, 점차 그의 추종자들과 정신분석의 이론적 다툼을 하게 되어서, 그와 이론적 입장이 다른 추종자들은 따로 학문적 분파를 이루어 멀어져가기도 했다.

## 9. 프로이트 이후



- 직계
- Alfred Adler(1870\_1937)
  - 열등감
  - 극복을 위한 힘에의 의지
- Carl Gustav Jung(1875-1961)
  - 프로이트: 인간의 어두운 측면만 보는 입장
  - 프로이트: 정신(영혼)적인 영원 무시

12-2-47

12-2장 file no.48

### [9. 프로이트의 이후]

프로이트의 학문적 직계로 Alfred Adler, Carl Gustav Jung처럼 프로이트의 이론을 직접 받아서, 이어서 정신분석학을 계승한 사람도 있지만, 그들은 후에 프로이트와 이론적인 갈등을 지녔다고 볼 수가 있다.

## 프로이트의 추종자들



- 분파가 시작됨: 크게 두 부류
  - 1. (성적) 본능의 비중 약화, 자아, ego에 초점
    - 자아와 세상의 분화 강조, 자아 발달
  - 2. 과학이기를 포기하고 해석적 측면에 초점
    - Jung의 분석심리
    - 해석학적 접근
    - 프로이트처럼 단 몇 개의 사례에서 마음 전체를 다루는 그런 심리이론을 형성하려고보다는, 그냥 개인의 문제 해결하는데 충족하는 입장 께니

12-2-48

12-2장 file no.49

그의 추종자들은 프로이트 이론에서의 성적본능의 비중을 점차 약화시키고, 자아(‘ego’) 또는 사회적 측면에 초점을 둔 이론을 발전시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신분석이 과학이기를 포기하고 해석학적 측면에 매달린 사람들, 마음 전체 이론을 형성하기보다는 환자 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치중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에 관하여는 Vincent Brome, [Freud And His Disciples] (2008)의 다음 책을 보거나 그 다음의 링크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http://www.amazon.com/Freud-And-Disciples-Vincent-Brome/dp/0755116127>

Oedipus Redivivus:Freud, Jung and Psychoanalysis

<http://www.haverford.edu/psych/ddavis/jungfreu.html>

John Burnham, (Ed.). [After Freud Left: A Century of Psychoanalysis in America].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2)

<https://www.dropbox.com/s/uj9bpreh2tta0ub/freud's%20american%20disciples.pdf>

Samuel Beckett (2006). “Freud's Disciple”

<http://voices.yahoo.com/freuds-disciple-72293.html>

## 프로이트와 심리학 학계



- 프로이트의 심리학은 문학, 경제학을 제외하고는 학문적 세계에 큰 영향을 못 미침
- 심리학계는 정신분석을 대체로 거부 또는 무시함
- 심리학계와 정신분석학의 화해는 시도되었지만 달성된 적이 없음
- 심리학계로부터 고립되었기에 정신분석학은 의학(의료)의 한 분야로 발전됨

12-2-49

12-2장 file no.51

심리학계 전반을 보면 프로이트의 심리학은 문학 경제학을 제외하고는 학문적 세계에 큰 영향을 못 미쳤다, 그러니까 의학에서 정신분석학이 정신병학에선 일부 활용되었지만, 심리학 자체에는 학문적으로 별로 영향을 못 미쳤다고 볼 수 있겠다. 심리학계는 정신분석학을 대체로 거부하거나 또는 무시하였다. 심리학계와 정신분석학의 화해의 시도는 있었지만 달성된 적이 없었다. 정신분석 이론은 심리학에서는 성격이론의 일부, 이상심리 이론의 일부로서만 사용되었을 뿐이지, 정신분석학은 과학적 심리학계로부터 떨어져서 고립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심리학계의 실상은 전혀 다르다.

## 정신분석학과 과학



- 실증주의: 정신분석학은 검증, 입증 곤란
- Karl Popper: falsifiability 반증 불가능
  - 고로 과학적 이론일 수 없음
  - 외디푸스 콤플렉스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정신분석가들 대답 못함
- ADOLF Gruenbaum: 철학자
  - 프로이트 입장 수용
  - 성공사례 (-증상 대응) ; 증거는 반증가능
- 그러나 다른 치료법(예: 행동치료법)도 사례수가 많다면, 정신분석방법이 유일한 방법 아님
- 성공적 사례 증거 부족함
- 이후 연구에 의하면 정신분석학만이 유일한 성공적 치료방법이 아님
- 반증불가하기에 과학이 아니거나, 입증하려면 형편없는 과학임

12-2-50

12-2장 file no.52

과학의 측면에서 보면, 정신분석학의 성공적 사례 증거가 부족하고, 다른 연구에 의하면

정신분석학만이 유일한 치료방법이 아니고, 정신분석학 예언과 이론을 검증하거나 반증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학철학자 Karl Popper의 이론에 따르자면 과학 이론이 되려면 반증 가능해야 하는데, 정신분석 이론은 그렇지 못하다.) 과학적 입장에서는 정신분석 이론은 과학적 이론이 아니라고 무시되었다.

## 프랑스 Lacan, Ricoer



### ● 대안 제시:

- 정신분석학은 과학이 아니라 해석의 방법임
- 정신분석은 과학이라기보다는 문학비평에 가까움
- 텍스트 해석학
- 환자의 텍스트 해석에서 치료자와 환자가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것이 목표임
- 고로 과학은 아님
- 그러나 서구에 신프로이트 입장은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음

12-2-51

12-2장 file no.53

한편 프랑스에서는 20세기에 들어서서 라캉(Jacques Lacan)같은 사람들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현대적 관점에서 발전시켰다. 라캉은 무의식이 언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그의 세미나 “프로이트로 되돌아가기”를 기점으로 하여 정신분석학에 대한 현대적 재평가와 포스트모더니즘적 이론의 전개를 추구하였다. 그의 입장은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프로이트와 실험법



- 프로이트나 심리학의 창시자들이나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의 목표는 같았으나
- 프로이트는 자신의 정신분석학이 생물학, 신경학에 기초한 과학이라고 믿었으나
- 정신분석학은 무의식이나 방어기제나 다른 개념, 이론들을 실험적으로 증명하려 하지 않았음
- 개인적 case 관찰사례의 풍부함이 실험 대신으로 과학으로의 충분한 증거 역할을 한다고 믿음
- 환자와의 이야기가 과학적 자료이고, 환자진료 session의 분석이 과학적 탐구 방법이라고 믿음
- 치료가 성공한 것은 이론이 참임을 증명한 것임

12-2-52

12-2장 file no.54

그 다음에 프로이트 이론을 실험법이란 측면에서 보면, 프로이트는 심리학이 실험과학으로서 출발했는데 프로이트는 실험법에 의해서 자기의 이론을 증명하지 않으려고 한 데에서 문제가 있었다. 프로이트의 방어기제 등 개념들이 실험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

## 10. Freud 종합평가



- 교재 참조

12-2-53

12-2강 file no.55

### [10. Freud 종합평가]

프로이트 이론과 정신분석학에 대한 종합평가는, 먼저 다음 링크를 참조하기를 바란다.

What did Freud get right?

- BY BERNICEANDREWS & CHRIS R. BREWIN

[http://www.thepsychologist.org.uk/archive/archive\\_home.cfm/volumeID\\_13-editionID\\_51-ArticleID\\_155-getfile\\_getPDF/thepsychologist%5Cfreud1.pdf](http://www.thepsychologist.org.uk/archive/archive_home.cfm/volumeID_13-editionID_51-ArticleID_155-getfile_getPDF/thepsychologist%5Cfreud1.pdf)

Criticisms of and Changes in Freudian Psychoanalysis

<http://www.infoplease.com/encyclopedia/science/psychoanalysis-criticisms-changes-freudian-psychoanalysis.html>

고전적 정신분석학 이론은 1920년대에 Otto Rank 등에 의해서 도전을 받았고 1930년대에는 호르나이(Karen Horney), 프롬(Erich Fromm), 설리반(Harry Stack Sullivan) 등에 의해서 비판을 받았다. 이들 비판은 프로이트이론이 사회심리적 측면의 소홀과 자아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고 무의식적 성충동을 강조한 것에 대하여 주로 비판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지주의가 대두되기 전 시기인 1950년대까지는 정신분석치료법은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은 정신분석학의 비과학성을 중심으로 비판을 계속 하였다. 정신분석학은 과학인 심리학의 일부로 용인하기에는 방법론적으로 너무 허점이 많았다.

정신분석학은 꿈이나 자유연상과 같은 엄밀하지 못한 방법과 자료에 너무 의존하며, 프로이트의 중심 개념인 방어기제 중에는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없는 개념 과정들이 있었다. 일반인들에게는 그럴 듯한 이야기로 들릴지 몰라도, 이들에 대한 경험적 증거 없이는 과학인 심리학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다. 정신분석학 방법은 심리학에서는 과학적으로 표준(standards)을 세울 수 없는 비과학적 시도로 평가되었다.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에서는 연구대상의 표본과 통계적 처리가 강조되는데, 프로이트의 이론은 아주 적은, 편향된 표본에 기초해 있고, 통계적 처리도 안 되어 있었다. 성적으로 억압되던 시기인 19세기에, 오스트리아라는 한 유럽 국가의 상류계층의, 특정 증상을 보이는,

그리고 여자 환자들이라는 제한된 표본은 과학적 심리학이 추구하는 무선 표집이나 폭넓은 범위의 표집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여 정신분석적 치료 효과가 있다는 자료를 얻으려면 시간과 경비가 너무 많이 필요했다.

이외에도 성격 형성에서의 성 충동의 역할에 대한 지나친 강조나 초기 아동기 이외의 환경 요인의 영향에 대한 소홀함에 대해서도 정신분석학은 비판되었다. 그래서 점차 심리치료를 위해서 다른 방법이나 다른 접근의 중요성이 인정되었다.

정신분석학이 비판 받는 다른 한 주요 이유는, 앞서도 언급되었지만, 정신분석의 치료효과란 본질적으로 환자와 치료자의 '상호작용'에 의한 효과인데 이 사회심리적 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고려가 프로이트의 이론체계에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초창기의 추종자들이 프로이트와는 달리 이러한 측면을 강조하여 별도의 학파를 만들어 나갔고, 결국은 정신분석학의 퇴조를 가져왔던 것이다.

지금의 21세기에는 정신분석학 이론은 심리학의 수많은 이론 중의 그저 하나일 뿐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지금은 인지심리학적 이론과 신경심리학적 이론에 의해 가려져서, 정신분석이론과 치료법은 점차 힘을 잃고 있다.

## 실제로 무엇이 일어났는가?



### ● 프로이트의 실제적 치료 행태:

- 환자의 이야기를 듣는 비지시적 치료자가 아니라
- 환자에게 치료자인 자신의 해석에 동의하기 까지 강하게 방향을 지워 몰아가는 지시적 directive 치료자
- 환자가 어릴 때에 성적 공황 경험을 한적이 없는데 있다고 해석하거나
- 주변의 다른 인물에 의해 성적 공격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아버지에 의해 공격받았다고 왜곡하거나, 그런 기억이 있다고 환자가 동의할 때까지 강압적으로 설득. 말을 안 따르면 무의식적 방어라고 해석함
- 환자의 모든 행동을 정신분석적으로 무의식적 충동의 발로로 제멋대로 해석함

12-2-54

12-2장 file no.56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치료 장면에서 실제로 무엇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시사를 준다. 프로이트가 실제로 자기가 환자들을 치료할 때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본다면, 프로이트는 자기 이론에서처럼 '비지시적'으로 치료한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지시적으로 약간은 강압적으로 설득하거나 말을 안 들으면 프로이트가 제멋대로 해석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그가 좋은 치료자는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다.



- 남의 아이디어 갖다 쓰기
  - Id, 아동기 성, 등의 아이디어는 친구 의사 Fliess의 아이디어
  - 이에 대한 두 사람간의 논박 진행됨
  - Fliess의 아이디어 따온 예
    - 성적 이상행동 치료 -코 수술 => 프로이트 환자
    - 오늘날 미국 드라마같은 복잡한 상황의 아이 치료
      - => 왜곡 해석

12-2-55

12-2장 file no.57

프로이트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가져다 쓴 것도 문제이다. 'id'라든지 '아동기 성충동' 등의 아이디어는 의사이며 그의 친구인 Wilhelm Fliess의 아이디어였고, 이에 대해 두 사람간의 논쟁이 있었다. 또한 프로이트의 이론적 개념들이 전혀 실제의 인간 심리에 맞지 않는 비판도 있었다.



- 비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 replaced
  - a bad method -> with a worse one
  - armchair 내성법 -> couch 내성법
  - 내성하는 주체는 훈련된, 체계적 과학자인 내성자가 아니라 병중의 환자

12-2-56

12-2장 file no.58

계속 프로이트 이론을 비판한다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심하게 얘기해서는 옛날에 있었던 정신병에 대한 좋지 못한 접근방법을 조금 더 나쁜 방법으로 대체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정신분석학 방법이 과연 심리학에 어떤 공헌을 했느냐에 대해서 부정적 비판이 제기될 수가 있다.

## 결론



- 정신분석학이 옳다 가 아니라
- 심리학이론에서 무시하였던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하고 주의를 돌리게 한
- 산파역할을 한 중간 징검다리?

12-2-57

12-2장 file no.59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정신분석학이 옳다가 아니다. 심리학 이론에서 무시했던 것 중의 일부를, 그러니까 무의식과, 성적 충동, 자아 개념 등을, 심리학자들이 주의를 돌려 생각하게 한 산파역할의 한 중간 징검다리이지, 정신분석학 이론이 맞고 심리학계에서 중요한 이론으로 계속 남았다는 것은 아니다.

## 프로이트의 공헌



- 1. 20세기의 위대한 지성인의 한 사람
  - 전혀 새로운 심리학 시작
  - 개인의 성격의 발달적 측면 강조
  - 아동 초기 경험이 후의 심리에 영향중의 의의 발견
- 2. 동기의 중요성 인정
  - 프로이트의 쾌락원리 = 손다이크의 효과의 법칙
  - Hull, Skinner의 강화 원리
- 3. 불안의 중요성 부각시킴
  - 성격 발달과 학습에

12-2-58





- 4. 프로이트의 방어기체에 대한 실험 검증 결과 타당한 것이 밝혀짐
  - -전이, 억압, 고착, 퇴행 등
- 5. 무의식의 중요성 부각시킴
- 6. 결정론을 강력히 지지함

12-2-59

그렇기는 하지만, 프로이트는 인간 본성에 대한 관점을 혁명적으로 뒤바꾸어 놓은 20세기의 위대한 지성인의 한사람이다. 그는 개인 성격의 발달적 측면을 강조하고, 아동 초기의 경험이 중요함을 제기하여,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 했던 전혀 새로운 심리학을 시작하게 흐름을 바꾸어 놓은 학자이다. 그는 합리주의 중심이었던 서구의 학계에 쾌락원리를 추구하는 인간의 동물적 동기적 측면과 인간 성격 발달과 학습 행동에서 불안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하여 심리학자들과 일반인의 주의를 돌리게 한 사람이다. 적은 사례에 기초하여 독특한 자기 나름의 심리학 이론체계를 세운 위대한 심리학자였다.



## Comments

- Freud:
  - He is full of fishy thinking and his charm and the charm of his subject is so great that you may be fooled.... So hang on to your brains. (Wittgenstein, 1992)
- Psychoanalysis:
  - Psychoanalysis is itself that mental illness of which it purports to be the cure.(1988)
- 19세기 심리학과 정신의학의 낡은 유물.

12-2-60

12-2강 file no.60

프로이트의 공헌과 프로이트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요약하자면, 프로이트가 발전시킨 정신분석학적인 입장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심리학에서 무시당했던 일부 개념들을 다시금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는 역할은 했지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과학적으로 우월하

거나 적합한 접근은 아니었다는 평가를 제시할 수 있겠다.

이것으로 12주 2회 차 강의를 끝마치도록 하겠다.

프로이트에 대한 종합적 정리는 위의 끝 부분의 내용과 앞서 제시한 웹자료를 참고해서 살펴보기 바란다.